

신다케 산과 후루다케 산

일본 남서부에 있는 사쓰난 제도 가운데 가장 큰 화산섬인 구치노에라부지마 섬은 여러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후루다케 산(649m)과 신다케 산(657m)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산 경관

활화산인 후루다케 산과 신다케 산의 경관은 분기공, 분화구, 그리고 화산 균열이 특징입니다. 이 화산들은 약 500,000 년 전에 수중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15,000 년 전부터 11,000 년 전에 걸쳐 두 번의 큰 분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화산들이 수 년 또는 수십 년마다 간헐적으로 분화하는데, 1933 년과 1934 년에 일어난 분화는 화구에서 1.7km 동쪽에 있던 나나카마 마을을 전멸시킬 정도로 컸습니다. 지표에 분출된 마그마의 대부분은 안산암질 용암입니다. 주로 수증기로 이루어진 분연이 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무카에하마 해안(2015 년의 분화에 따라 폐쇄), 니시노유 및 네마치 온천에서는 토양이 파헤쳐진 곳에 지하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눈에 띄게 따뜻한 수온에 수반하여 해저에서 기포가 생기는 것을 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5 년 분화의 교훈

신다케 산은 2014 년 8 월 3 일에 34 년 만에 분화했고, 나아가 2015 년 5 월 29 일에 다시 분화했습니다. 2015 년의 분화에서는 재를 포함한 분연이 약 9,000m 상공까지 피어올라 모든 섬 주민과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이웃한 야쿠시마 섬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반 년 가까운 긴 피난생활로 지친 끝에 다음에 또 분화가 일어나더라도 섬을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섬 주민들이 장래에 섬에서 피난하지 않아도 되게끔 반야가미네 봉우리에 피난시설과 헬리포트가 건설되었습니다. 피난 훈련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사전에 약속된 배치로 차를 주차하여 분화 시에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피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난시설과 경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직원도 화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화산의 활동을 기록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또한 분석을 위해 후쿠오카 관구 기상대로 발신되는 수치를 측정하는 기기가 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